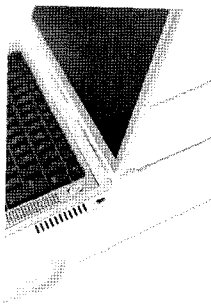




2009년 10월 26일 **조합 · 업계소식** [www.kozuon.or.kr](http://www.kozuon.or.kr)



- 지경부 「폐지유통관리기구」 설립 구체화
- 국제옥수수시세는 약세인데 중국산 전분가격이 오르는 이유
- 국산 폐지값 올들어 66% 올라
- 일부 지함업계의 골판지 공동구매 리베이트요구에 강력 대응해야
- 골판지원지가격 인상
- 일본 포장박람회(JAPAN PACK 2009) 참관단 구성
- 골판지원지 값 인상에 포장박스업체들 올상
- 씨감자상자 입찰과 정신없는 지함업체들
- 조합, 성주군 군민화합의 밤 후원
- 서림하이팩, 송행임 대표이사 취임
- 롯데알미늄, 김치현 대표이사 취임

## 지경부 「폐지유통관리기구」 설립 구체화

지경부는 폐지회수 및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지 유통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설립방향은 모든 이해 당사자의 참여로 제지관련산업 안정성장에 기여, 폐지수급, 품질향상방안 수립, 폐지유통구조개선이다.

운영은 제지·폐지, 포장업체가 참여한 재단법인화, 폐지수급 및 품질·인증 등 3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2009년 말까지 조직, 운영형태, 자원조달 등의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설립을 추진한다.

## 국제옥수수시세는 약세인데 중국산 전분가격이 오르는 이유

중국 수입 옥수수가격이 지속적으로 강세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옥수수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금년 들어 6월 첫 주 고점을 찍은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인하여 미국 시카고 선물 거래소 기준으로 톤당 129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6월 첫 주 175불에 비하여 26%가 인화된 수준이다. 이는 세계적인 경기위축으로 옥수수사용량이 줄어들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만은 예외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옥수수전분의 경우 지난 3월 250불에서 5월 280불, 7월 300불, 8월 물의 경우 330불을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10%가량의 추가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 수입 추천하는 중국산 옥수수 전분 시세는 환율인하에도 불구하고 인하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 옥수수가격이 강세인 이유는 옥수수농가 지원을 위해 중국정부에서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4,000만 톤을 긴급 구매하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옥수수가 방출되기 전까지는 가격인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방출기대가 있긴 하지만, 중국정부는 비축 옥수수를 아프리카 등지의 식량원조 재원으로 조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신곡이 나오는 10월 하순에 가서야 새로운 변화가능성을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 전망된다.

## 국산 폐지값 올들어 66% 올라

최근 들어 폐박스, 폐신문지 등 국산 폐지(廢紙)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일 골판지 업계에 따르면 올초 t당 9만원 선이었던 국산 폐박스 가격이 지난달 15만원 선으로 66%나 올랐다. 또 폐신문지 가격도 올초 t당 13만원에서 21만원 선으로 약 62% 올랐다. 경기침체로 인해 시장 상황이 썩 좋지 않은 가운데 이 같은 가격 강세는 국산 폐지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골판지원지 업체 간 과열 경쟁이 주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골판지원지 업체들은 폐지를 이용해 각종 박스의 표면지, 골심지 등을 만든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수도권과 지방의 골판지원지 업체들이 폐지 가격이 쌀 때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공장 가동률을 높이면서 업체들 간에 폐지 확보 경쟁을 벌였다. 따라서 공장 가동률이 올 1분기 평균 73%에서 지난 달에는 88%까지 올라갔다.

실제 수도권의 한 업체가 지방에서 폐지를 시세보다 t당 1만원 정도 더 주고 구매에 나서면서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 구룡제지 텐진공장(연산 골판지 80만t)이 올 3분기 가동을 앞두고 대중국 수출도 늘어 폐지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국산 폐지의 수출량은 18만 6500여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정도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폐지 가격 상승은 장기적으로 제품 가격에 반영돼 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업체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2009. 8. 2〉

## 일부 지함업계의 골판지 공동구매 리베이트요구에 강력 대응해야

최근 일부지역 지함업계 친목모임 관련인사들이 모임 재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골판지를 공동 구매키로 하고 협상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추진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역별로 지함업체 회원 사장들이 모여 인기투표(선호도 조사)형식으로 골판지포장회사를 섭외, 순위별로 선정된 다음 외상거래에 따른

채권보장도 없이 단순히 물량만 몰아주고 거래가격을 정하면서, 이에 더하여 1%의 리베이트를 요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별 지함업체는 인천 남동지역, 용인광주지역, 김포파주지역, 대구경북지역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 골판지포장업체 관계자들은 골판지포장시장이 공급 초과상태가 심하여 아무리 수요자중심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지함업체에서 이러한 발상까지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선도하고 있는 일부 지함업체 인사의 넘치는 의욕과 욕심에서 비롯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히고, 골판지포장시장의 건전 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전업체의 중지를 모아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판지포장업체에서는 지함업체의 이러한 거래요구에 대하여 저가경쟁을 유발시키고 장기적으로 골판지 시장에서 수급 및 가격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무분별하게 응할 경우 낙점받은 업체의 경우 1%의 리베이트를 비지금으로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낙점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생존을 위해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해야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야 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 골판지원지가격 인상

골판지원지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골심지의 경우 톤당 38만원으로 통지하고 있어 크게는 40%이상의 큰 폭의 인상을 보이고 있다. 제지업체에서는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폐지수급이 원활치 못하여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전고점인 지난해 하반기의 가격이 40만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골심지의 경우 품질차이에 따른 가격차이가 있어야 함에도 일괄적으로 38만원이 적용되는 경우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차체에 이러한 불건전한 거래질서는 없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골판지포장업체는 시장수요가 부족하여 금년 초부터 점진적으로 인하된 골심지 가격을 한꺼번에 40%이상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도의를 벗어난 일방행위라는 점을 지적하고, 인상 충격 흡수방법의 하나로 2단계 인상안을 제안하고 1차적으로 35만원 인상하고 11월중 38만원 인상으로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골판지포장업체나 지함업체의 경영난을 더는 대안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여 왔다.

그러나 제지업체의 완강한 일괄 인상 통지에 대하여 뾰족한 대응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슴앓이만 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 제지업체에서는 지난 8월초 32만원으로 인상 방침을 철회하고 업체에 따라 골심지의 경우 38만원, SK180은 48만원으로 이번 주부터 적용하겠다는 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포장박람회(JAPAN PACK 2009) 참관단 구성

매 2년마다 개최되는 일본 최대의 포장 박람회로 올해에는 2009. 10. 20(화) ~ 23(금), 4일간 일본 도쿄 BIG SIGHT EXHIBITION CENTRE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전시회의 51,380㎡면적의 전시장내에서는 약 2,700여업체가 참가하여 국내외 포장기계, 포장자재 등의 신제품을 전시 공개하며 약 140,000여명의 참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어, 세계 포장산업의 최근 기술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골판지조합에서는 개최시마다 전시회 참관, 일본 골판지 및 골판지기계회사 견학 등일정으로 해외시찰단을 매년 파견, 참관하여 국내 골판지포장업계의 새로운 경영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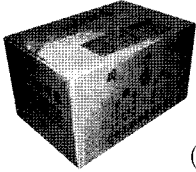
## 골판지원지 값 인상에 포장박스업체들 울상

박스의 주 재료인 골판지 원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포장박스 제조업체들이 원가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30일 제지업계에 따르면 골판지원지 생산 업체들이 박스에 쓰이는 표면지(박스 겉면용),골심지 등의 가격을 최고 36% 인상키로 결정, 최근 포장박스 및 지함(紙函)업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표면지는 지난달 t당 42만원 선에서 이달 말 48만원 선으로 14%,골심지와 이면지(박스 안쪽용)는 t당 28만원 선에서 38만원 선으로 36% 오르게 됐다. 골판지원지 업계는 원지의 원재료인 폐지 가격 인상으로 원가 부담이 높아져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가격 인상은 골판지원지 업체들이 자초했다는 지적이 높다. 이들은 올초만 하더라도 원재료인 폐지 가격이 하락한 데다 경기침체로 제품 수요가 줄자 원지 가격을 내렸다. 표면지의 경우 지난해 말에는 t당 48만원 선에서 지난달 41만원 선으로 인하했다. 그러나 원지업체들은 지난 3월께부터 폐지 가격이 저렴할 때 보다 많이 생산하기 위해 잇달아 폐지 확보에 나서는 등 과열 경쟁을 펼쳤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에 한 업체가 지방에서 폐지를 시세보다 t당 1만원 정도 더 주고 대거 구매에 나서면서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

포장박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골판지원지 업체들이 수급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시장을 교란시켰다”며 “더구나 가격도 마음대로 내렸다가 올리는 등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지업체들은 원가 상승분을 곧바로 가격에 반영하지만 포장박스 업체는 최종사용자와 연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어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씨감자상자 입찰과 정신없는 지함업체들



지난 9월 1일 조달청에서는 중소기업자 경쟁물품으로 입찰 공고한 씨감자포장용 골판지상자를 경쟁에 붙인 결과 모두 10개사가 참여하여 최종 순위가 가려졌다. 발표된 개찰 순위에 따르면, 1위 S판지(지함), 2위 D포장(지함), 3위 D포장(지함), 4위 Y산업(지함), 5위 제일산업, 6위 삼보판지 등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1위 S판지기업은 예정가격의 86%수준에서 투찰하였고 이 제시 가격은 제일산업의 87%수준에 불과한 낮은 가격이다. 이번 인상된 원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냉정하게 원가계산을 해 본 결과 인상된 원지가에 가공비 200원을 가산한 현 지도착 조건의 가격은 매당 930원이 산출되었는바, 강원도 오지에 공급되어야 하는 열한한 운송조건과 롯데 별 검사비용 부담 등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950원 이상의 조건에서 공급 가능한 수준이었으며, 5위, 6위의 성적표를 갖게 된 제일산업이나 삼보판지의 경우 950원도 해피한 가격조건이 결코 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골판지포장기업은 제일산업을 필두로 삼보판지, 산성피앤씨, 한국수출포장, 광신포장 등이 뒤를 이었는데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에 관한 최고의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이들 업체에게 낙동강 오리알처럼 미끄러지게 만든 경쟁자들이 놀랍게도 1~4순위를 한 지함업체들이었다. 미끄럼 탄 골판지포장기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세아제지 계열의 제일산업, 고려제지 등을 자회사로 둔 삼보판지, 상장회사로 부채비율 30% 미만인 초우량기업 산성, 국내 유일의 수직 일관기업 한국수출포장, 국내 골심지 최대생산 DY그룹의 주력사 광신포자로 이들 모두가 한국골판지포장산업계의 간판기업들인데, 이들을 단숨에 제압한 지함업체들의 용기가 걱정스러울 뿐이다.

지난 8월 들어서자마자 골판지원지업계의 원지가격 인상 계획들이 업계에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골판지원단 및 골판지상자 가격의 인상과 공급애로에 대한 우려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은 일주일도 가지 않아서 골심지 가격 인상을 통고 받게 되고, 8월 하순에 와서는 46%라는 상상을 초월한 수준으로 수정 통고받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골판지포장업계는 지함업계에 골판지 연동반영의 불가피성을 전달하는 등 전후 상황을 충분히 공유하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씨감자포장용 골판지상자의 응찰가격을 살펴보면 도대체 정신을 갖고 사업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함업계는 골판지원단 가격의 변화가 회사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격인상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왔으며 골판지포장업계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서로 협력하여 상황을 대처하여 왔지만, 이번의 경우는 어떤 핑계로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은 이런 수준의 낙찰을 하고도 경험부족과 미숙함이었다는 지적을 숨기고 손해의 이유를 골판지포장기업으로 돌려 버린다는 것을 경험칙으로 잘 알고 있다. 이들의 이 같은 정신없는 행동들이 선량한 골판지포장업계와 지함업계의 관계를 미묘하게 해왔고, 다같이 마이너산업(?)으로 전락시키는데 일조했었음을 잘 알고 있다.

## 조합, 성주군 군민화합의 밤 후원

(사)한농연성주군연합회(회장 최덕근)는 제 23회 성주군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및 군민화합의 밤 행사를 “군민과 함께 웃는 성주농업”을 슬로건으로 하여 8월 28일 성주읍 경산리 성밖 숲에서 개최했다. 성주군과 성주군 각 농협, 골관지포장조합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군민 단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참외 등 우수농산물 전시회 등을 겸하여 진행하였다. 우리조합은 전국 대표적인 참외산지로서 매년 70억원 가량의 골관지상자를 공동판매를 통해 공급한 것을 인연으로 지속적으로 후원하여 왔다.



## 서림하이팩, 송행임 대표이사 취임

서림하이팩(주)는 골관지 및 삼중 골관지 중량물상자 생산 전문업체로 '09. 7. 1 송행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하였다. 송해임 신임 대표이사는 한양대 경영대학 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한성코텍(주)대표이사를 지냈고, 04년부터 서림하이팩(주) 부사장을 역임하였다.



## 롯데알미늄, 김치현 대표이사 취임

롯데알미늄(주)는 지난 '09. 8. 11 김치현 전무를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하였다. 김치현 신임 대표이사는 영남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롯데케논 상무, 롯데건설 전무를 역임하였다.